

국내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²연세대학교 치과대학
³연세대학교 치과대학 BK21 플러스 통합구강생명과학 사업단, ⁴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이보라^{1,*}, 김대엽^{2,*}, 허지선¹, 김수연^{1,3}, 최성호⁴, 정희인⁵

*표기된 두 저자는 공동의 제1저자로서 본 연구에 동일하게 기여하였습니다.

간추린 제목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헌고찰

ORCID ID

이보라, [ID https://orcid.org/0000-0002-1162-9803](https://orcid.org/0000-0002-1162-9803)

김수연, [ID https://orcid.org/0000-0003-1170-7143](https://orcid.org/0000-0003-1170-7143)

김대엽, [ID https://orcid.org/0000-0002-5610-9668](https://orcid.org/0000-0002-5610-9668)

최성호, [ID https://orcid.org/0000-0001-6704-6124](https://orcid.org/0000-0001-6704-6124)

허지선, [ID https://orcid.org/0000-0001-5514-187X](https://orcid.org/0000-0001-5514-187X)

정희인, [ID https://orcid.org/0000-0002-1978-6926](https://orcid.org/0000-0002-1978-6926)

ABSTRACT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scoping review

¹Department of Dent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²Senior Dental Stude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³BK21 PLUS Projec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⁴Department of Periodont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⁵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Bora Lee^{1,*}, Dae-Yeob Kim^{2,*}, Jisun Huh¹, Soo-Yoon Kim^{1,3}, Seong-Ho Choi⁴, Hoi-in Jung⁵

*These authors equally contributed to this work as first author

Running Title :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Background : Research on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future oral health policie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Objective : In this scoping review, previous studies on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ere reviewed, and the stud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research participants and research purposes. The variables related to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were also analyzed. Through this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Design : Korean databases such as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DBpia,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were investigated to collect data regarding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After retrieving the references, the title and the abstract of the literature were reviewed and their relevance was screened. Full text screening was conducted and a total number of 42 studies were selected, which met the inclusion criteria.

Results : Aft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of 42 studi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married migrant wom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four types), of whom the most frequent was marriage migrant women (45.5%) and (b) the research purposes were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status, dental service utilization,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education (six types), of which the most frequent was oral health behavior (39.7%).

Conclusion : This research takes a systematic approach to exploring research participants, purposes, variables related to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resid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most published research topic of research participants was 'marriage migrant women' and oral health behavior has the highest number of publications in research purposes.

Key words : foreign residents, multicultural family, oral health, dental service utilization, Korea

Corresponding Author

Hoi In Jung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 Public Oral Health,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72

TEL : +82-2-2228-3070 / E-mail : junghoiin@yuhs.ac

ACKNOWLEDGEMENT 연구비 수혜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정책과제연구비(6-2020-0040)

I. 서론

다문화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뜻하며, 다문화의 개념은 국가나 사회가 문화를 규정하는 방법, 다문화의 주체,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¹⁾.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른 다인종화, 다민족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양화로서 다문화가 이해될 수 있다²⁾.

우리나라에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1차산업 및 3D 직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의 공급 과정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였다³⁾. 정부는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불법취업을 막고자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통합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 4천명, 취업자는 86만 3천명으로 보고되었다⁴⁾.

외국인 유학생 또한 증가되어 국내 외국인유학생 수는 2009년 7만 5천명이었던 것이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되어 2019년 16만명이었고, 세부적으로는 학위과정 유학생 수 및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의 유학생 수가 모두 2배이상 증가되었다⁵⁾. 외국인 유학생들은 치과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학사일정으로 인한 시간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의 이유로 치과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⁶⁾.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자 및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⁷⁾. 2008년 다문화 가구수는 14만가구였으며 2018년 33만 가구로 십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⁸⁾.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 출생이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보다 0.3%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출생이 전년보다 8.7%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2.0% 감소하여 상

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다문화 자녀 세대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국민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⁹⁾.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2020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5,689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24.7%인 526,827명이고, 결혼이민자는 7.9%인 167,834명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7.2%인 153,426명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91.4%인 481,944명은 단순기능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강건강 및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이용실태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에 대해 주제범위 고찰을 수행하고, 기존 연구의 설계를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연구 유형 및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기존 문헌을 수집, 분석, 합성하였고, 그 과정은 주제범위 문헌고찰 보고 지침(PRISMA-ScR)에 따랐다¹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출판되어 웹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문 문헌으로 하였다.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의과학연구정보센터(KMbase), 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 국회전자도서관을 사용하였다. 문헌검색 시 제목에 '외국

인', '이주', '다문화', '유학생' 중 최소 하나를 포함하면서 '구강' 또는 '치과'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다. 학위논문, 단행본, 포스터 발표, 구연 발표,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문헌은 제외하고 국내학술지의 논문만 포함하였다.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Kibase 46편, DBpia 45편, KISS 53편, RISS 60편, 국회도서관 106편으로 총 310편이었다. 이 중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고 총 113편의 논문에 대해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고 구강건강이나 치과의료 이용 변수를 측정된 59편의 논문에 대하여 전문(full text)을 읽고 선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2인의 독립적인 검토자가 본문을 읽고 다섯 가지 포함 기준(inclusion criteria)에 따라 논문을 평가하였으며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를 만족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42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Fig. 1). 다섯 가지 기준은 첫째, 연구목적 혹은 질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을 것, 둘째, 연구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 셋째, 모든 연구대상자는 같거나 비슷한 인구집단(비슷한 시기 등)에서 선택되어 있을 것, 넷째, 연구목적에 따라 측정변수 및 결과가 제시되어 있을 것, 다섯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조사되어 결과분석에 적용되었을 것이었다(Table 1). 이후 선정된 논문을 주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문헌 중에서 두 집단 이상이 주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중복으로 분류하고 연도에 따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의 하위 분류로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였다. 연구목적은 2인의 연구자가 토론 및 수정 작업을 거쳐서 선정하였으며,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행태, 구강보건교육,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지식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분류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헌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목적을 검토하였고,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각 연구의

독립변수 중에서 앞서 분류한 연구목적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가 포함된 경우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결과가 논문에 제시되었다면 해당 변수도 주 연구목적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연구목적이 구강보건교육(효과측정)으로 분류된 문헌은 효과의 측정 자체가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보고된 결과 변수의 종류와 무관하게 중복 분류 없이 단일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전체 연구를 분류한 다음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를 분석하였다.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는 문헌의 연구방법 및 결과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연구목적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로서 그 결과값이 구체적으로 보고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변수 중에서 정기검진을 위한 치과방문여부를 묻거나 단순히 치과방문여부만을 확인한 경우에는 구강관리 행태로 분류하고 치과방문과 관련된 요소(치과방문 이유, 치과 미방문 이유 등)까지 조사한 경우에는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로 포함하였다.

주 연구대상에 따라 연구에 도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된 결과는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적용된 변수만을 포함하였다.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모든 주 연구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특성은 공통변수로, 각 연구대상에서 특이적으로 적용된 특성 구분변수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III. 결과

1. 주 연구대상에 따른 문헌분류

전체 42편의 논문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연구대상 별 문헌의 수 총합은 총 44편이었다(Fig. 2). 분류 결과,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20편(45.5%)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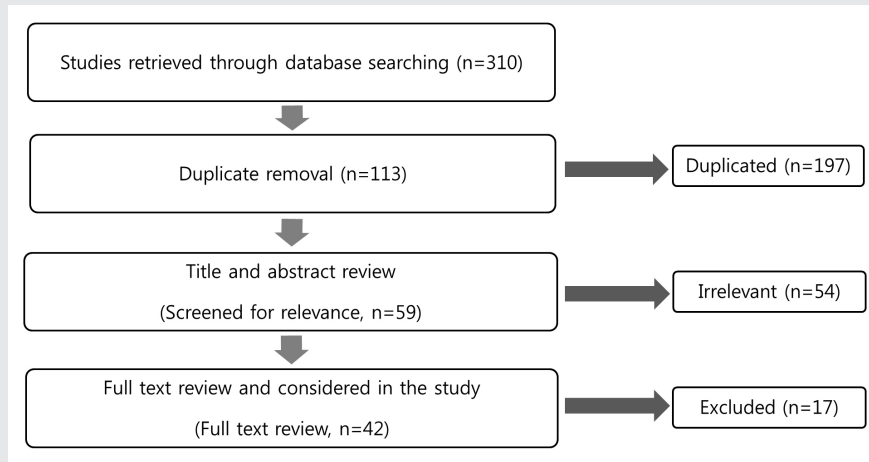


Figure 1. Study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arch and selection process.

Table 1. Inclusion criteria for full text review.

Category	Inclusion Criteria
Purpose &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purpose or questions are clearly presented.
Participa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specified in detail.
	All participants are selected from the same or similar population (similar period, etc.).
Outcomes	The measurement variables and result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 have been investigated and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results.

장 많았고, 다문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12편(27.2%),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9편(20.5%),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3편(6.8%)이 있었다.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소아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헌의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았다(Fig. 3).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7년에 가장 먼저 보고되었고, 이후 2010-2012년, 2015-2016년의 기간에 연간 1-3편

의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2009년에 1편이 보고된 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4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다문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는 2011년 처음 출판되어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년 1-2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는 2012년에 1편, 2016년에 2편이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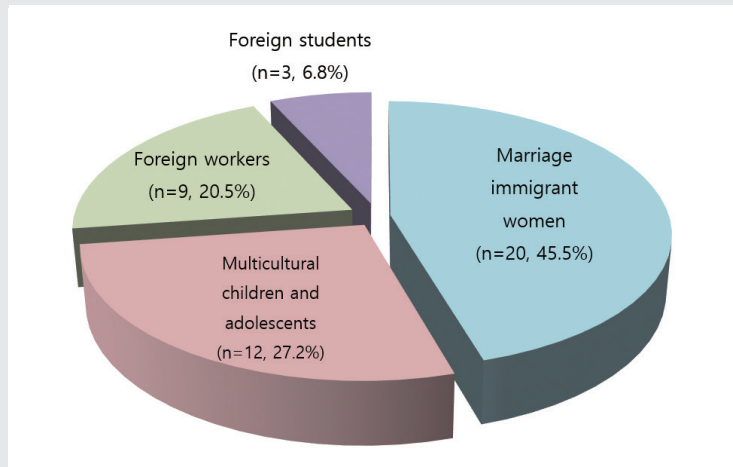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studies by research participants (N=44, including duplic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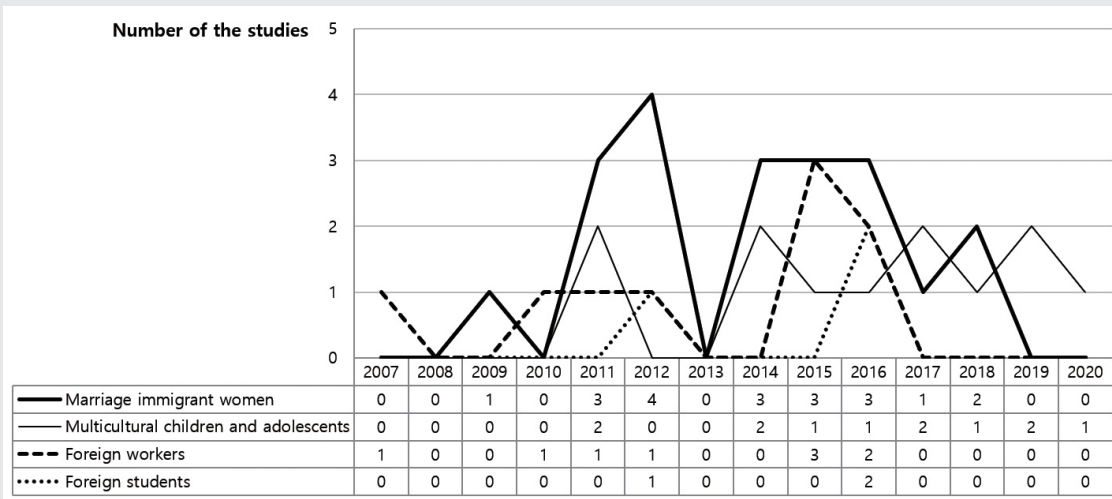


Figure 3. Number of studies per year by research participants (N=44, including duplicates).

2. 주 연구대상 별 연구목적

6가지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을 때 연구목적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으로 분류하였고, 주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된 42편의 문헌을 주 연구목적에 따라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각 분류의 문헌 수 총합은 총 78편이 되었다.

전체 주 연구대상에 대한 주 연구목적의 현황은 Fig. 4와 같고, 주 연구대상 별 주 연구목적에 따른 문헌의 수와 문헌 목록은 Table 2와 같다.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구강관리행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각각 31편(39.7%), 27편(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치과의료이용이 8편(10.3%), 구강건강신념이 5편(6.4%), 구강보건지식이 4편(5.1%), 구강보건교육이 3편(3.8%)이었다. 전체 연구 중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구강관리행태가 11편, 구강건강상태가 10편, 다문화 소아청소년에 대한 구강관리행태가 10편으로 가장 많았다.

3. 연구목적에 따른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

각각의 문헌에서는 구강건강행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 삶의 질,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지식의 6가지 연구 목적에 따라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가 적용되었으며 연구목적 별 관련 변수는 아래와 같았다(Table 3).

4. 주 연구대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수

각 연구에서는 연구집단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조사되어 결과 분석에 적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공통적으로 적용된 변수와 인구집단에 특징적으로 적용된 변수가 있었다 (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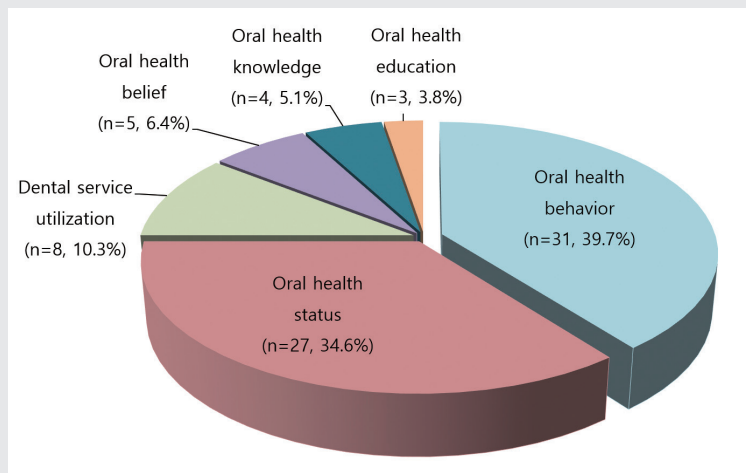


Figure 4. Number of studies by research purposes (N=78, including duplicates).

Table 2. Classification of studies according to research participants and research purposes.

Research participants	Purposes						Total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status	Dental service utilization	Oral health belief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education	
Marriage migrant women	11 ¹¹⁻²¹ (33.3%)	10 ^{11-13, 17-23} (30.3%)	3 ^{11-12, 26} (9.1%)	5 ^{14-16, 24-25} (15.2%)	2 ^{15, 28} (6.1%)	2 ^{27, 29} (6.1%)	33 (100%)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10 ^{19, 30-38} (50.0%)	9 ³³⁻⁴⁰ (45.0%)	-	-	-	1 ²⁸ (5.0%)	20 (100%)
Foreign workers	8 ⁴¹⁻⁴⁸ (38.1%)	7 ^{41-46, 48} (33.3%)	5 ^{43-44, 46, 48-49} (23.8%)	-	1 ⁴⁷ (4.8%)	-	21 (100%)
Foreign students	2 ⁵⁰⁻⁵¹ (50.0%)	1 ⁵⁰ (25.0%)	-	-	1 ⁵² (25.0%)	-	4 (100%)

Table 3. Variables related to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according to research purposes.

Purpose	Variables related to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 utilization
Oral health behavior	Tooth Brushing Behavior, Use of Auxiliary Oral Hygiene Products, Experience in Oral Health Education, Regular Dental Visits, Experience of Scaling and Sealant Treatments, Smoking, Alcohol Drinking, Sugar Intake, and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PHP index)
Oral health status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Decayed, Missed and Filled Teeth (DMFT), Community Periodontal Index Treatment Need, (CPITN), Simplified Oral Hygiene Index (SOHI), 3 rd Molar or Soft Tissue Abnormality, Conditions of Prosthesis, Needs for Prosthetic Treatment,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 14 (OHIP-14)
Dental service utilization	Experience of Dental Service Utilization in Korea (Purpose of the Dental Visits, Satisfaction), Dental Care Need Awareness Rate, and Reasons of Not Having Dental Treatments
Oral health belief	Susceptibility, Seriousness, Barrier, Benefit, Salience, and Self-efficacy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Literacy, and Oral Health Literacy Instrument for Korean Children's Caregiver (OHLIKCC)
Oral health education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Belief, and Oral Health Knowledge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구강 건강 및 치과의료이용과 관련한 국내 문헌에 대해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을 시행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란 특정 영역에 대해 기존 연구의 범위와 특성을 분석하며 연구의 질적인 평가는 포함하지 않지만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⁵³⁾.

주 연구대상별로 논문이 처음 출판된 시점을 보면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2007년에 가장 먼저였고, 이후 결혼이주여성(2009년), 다문화소아청소년(2011년), 외국 인유학생(2012년)의 순이었다. 주 연구대상의 시기별 흐름은 각 인구집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를 반영하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외

Table 4. Socio-demograph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s.

Common variables	Age (academic year), Gender, Educational Level, Income, Occupation, Nationality, Religion,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Korean Language Ability
Marriage immigrant women	Number of Children, Spouse's Age, Occupation and Educational Level, Marriage Period, Family Type (extended family/nuclear), Pregnancy, Residence (city and country), and Perceived Difficulties related to Cultural Adaptation (language, family conflict, cultural differenc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Distinct variables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Type, Father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Academic Record, and Father and Mother's Motherland
Foreign workers	Payment of Medical Expenses (self-paid, self and one's company paid, and free), Standard of Living in Home Country,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Roommate, Marital Status, Regular Social Gathering, and Working Hours per week
Foreign students	Residential Type (boarding myself/boarding house/dormitory), Satisfaction Level with Studying Abroad, and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국민근로자의 유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는 1980년 후반부터 유입되어, 1997년 말 IMF경제위기 및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두 번의 감소시기가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보다 늦은 1990년대 초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유입이 급증하였다⁵⁴⁾. 본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구강건강 및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가 국제결혼의 자녀세대인 다문화 소아청소년과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을 포함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6가지 연구목적 분류 중에서 구강관리행태, 구강건강상태와 등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반면에 치과의료 이용,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구를 설계할 시에 본 연구에서 보고된 바를 참고한다면 주 연구대상에 따른 주 연구목적은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교육의 효과 분야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보고되었는데, 유지관리 및 구강건강의 증진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므로 향후 다양한 외국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

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외국인의 구강건강 및 구강보전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지식은 개인의 구강관리행태를 예측하게 하고, 치과의료 이용과 구강건강 치료결과에도 영향을 준다²⁾. 따라서 외국인들의 구강건강신념이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연구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치과의료이용 및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연구와 연관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잇솔질 행태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정기적 치과내원여부, 스케일링 및 홈메우기 경험여부, 기호식품 섭취실태,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등을 측정하여 문헌마다 구강관리행태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나 구강검사를 통한 객관적 건강상태가 측정되었는데,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상자의 실제 구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치과의료이용에 대해서는 국내치과의료기관 이용경험, 치과진료필요인지율, 치과진료미충족률, 치과진료미충족원인 등이 조사되어 연구 대상자의 치과의료 이용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 항목이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로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강건강신념은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 자기효능감 등이 이용되었는데 민감성은 자신이 구강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심각성은 구강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며, 유익성은 예방적 행동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고, 중요성은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장애는 건강한 구강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다⁵⁵⁾.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을 위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⁵⁶⁾.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건강문해력은 개인이 구강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처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의 정도로 정의되며, 올바른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⁵⁷⁾. 외국인의 구강건강문해력은 한국어 능력 및 거주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시 통역지원 서비스 여부나 구강위생용품에 정보 표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 및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국적 등은 공통변수로 적용되었고, 각 주 연구대상에 따라 다른 연구집단과 구별되는 구분변수가 적용되었다. 향후 연구집단을 선정하고 연구를 설계할 시에 각 집단별 공통변수와 구분변수를 적용하고, 개별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변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헌고찰 결과는 향후 국내체류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연구의 설계 시 참고자료로서 의의가 있으며, 다문화시대에 구강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구강건강 및 치과이용실태에 대한 연구로 주 연구대상,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고,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시행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주 연구대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소아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45.5%)가 가장 많았다.
2. 주 연구목적으로는 구강관리행태, 구강건강 및 구강건강 삶의 질,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신념,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교육이 있었으며, 구강관리행태에 대한 연구(39.7%)가 가장 많았다.
3. 연구마다 주 연구목적에 적합한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이용 관련 변수가 적용되었고, 주 연구대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연구의 결과 분석에 적용되었다.

참 고 문 헌

1. 김유경.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류정아. 다문화지표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3. 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0.
4. 통계청.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9.12.19.
5. 교육부.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 2019.11.18.
6. 김선주, 황수현, 유지수.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5):381-388.
7. 법률 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03.21.
8.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9.08.29.
9. 법무부. 2020년 6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09.03.
10. Tricco AC, Lillie E, Zarin W, et al.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Checklist and Explanation. Ann Intern Med. 2018;169(7):467-473. doi:10.7326/M18-0850.
11. 조우순, 전진호, 최미숙, 이정화, 이혜민, 이지희, 손혜숙, 조영하. 경남 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구강건강 관련 특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1.
12. 윤현경, 최규일.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12(3):268-275.
13. 이종화, 최미숙, 장영호. 다문화 이주여성의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7;17(1):145-153.
14. 구인영, 가경환, 천종애, 문선정.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조사.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2015;3(4):456-465.
15. 김미, 조영식. 다문화가정 모친의 자녀 구강건강관리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8;18(5):807-819.
16. 구인영, 가경환, 천종애, 문선정. 다문화가정 여성의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구강보건교육인식도 조사 - 일부 농어촌지역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구도서연구 2018;30(4):203-221.
17. 김혜진, 남지영.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6;16(1):93-101.
18. 전은숙, 안서영, 최연희.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구지역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11;11(3):181-187.
19. 이나경, 오효원, 이흥수.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모자의 구강보건행태 비교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1;35(4):450-456.
20. 임재란, 정미숙. 도시와 농촌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건강실태 및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4;15(4):2244-2255.
21. 윤현경, 최미숙, 최규일. 동아시아 국내 이주여성의 치과방문여부와 구강건강교육유무가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2;12(2):409-417.
22. 윤현경, 이승희, 최규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13(2):678-684.
23. 전은숙, 진혜정, 최순례, 장분자, 정선영, 송근배, 최연희. 대구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의 구강건강 상태에 관한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3):499-509.
24. 가경환. 문성정, 구인영,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구강건강인식도와와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5;16(12):8487-8497.
25. 이태희, 최승재, 이재영, 박보영, 백해란, 진보형. 다문화 가족의 구강건강신념과 문화적 신념.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5;39(3):220-225.
26. 임치영, 이흥수, 이나경, 주현정, 이선호, 오효원. 논산시 일부 다문화가족 모자의 치과의료이용행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4;38(2):111-117.
27. 조민정, 강재민, 송근배.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16;14(10):319-326.
28. 남궁은정, 박덕영, 정세환, 마득상. 강릉시 일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구강건강문제해력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6;40(2):71-78.
29. 진보형. 다문화 가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 모델 구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30. 박영남, 윤성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2017;15(11):351-360.
31. 임선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강보건교육경험 영향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20;20(3):325-333.
32. 이선미, 송윤신, 김영남, 안은숙.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8;42(2):46-51.
33. 이혜림, 이광희, 라지영, 안소연, 김윤희.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과 자녀의 치아우식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12;39(2):111-119.
34. 남궁은정, 김희경, 김선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구강건강증상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9;19(2):297-306.
35. 박지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청소년의 구강건강행태 비교 분석. 한국치위생학회지. 2015;15(3):505-512.
36. 박경화, 이미라. 우리나라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중 고등학생의 구강질환증상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2017;17(2):193-202.
37. 배진순. 한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구강건강행태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4;31(5):71-79.
38. 한여정, 박신영, 류소연.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강질환증상과의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6;16(6):893-907.
39. 박지영, 정기옥.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구강증상경험의 비교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9;19(2):287-295.
40. 서윤진, 이광희, 라지영, 안소연, 김윤희. 전북지역 다문화가족 어린이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11;38(2):137-145.
41. 윤성옥, 남인숙.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OHIP). 한국치위생학회지. 2015;15(3):451-459.
42. 고수연, 남지영, 김혜진.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6;6(11):357-367.
43. 김주영, 정명희.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구강건강관리 실태 및 우식경험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2):123-133.
44. 남인숙, 이경수, 장은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구강건강수준과 치과 의료 이용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5;15(1):19-29.
45. 남인숙, 윤성옥, 김정숙.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치솔질행태와 구강건강상태. 치위생과학회지. 2015;15(1):1-11.
46. 이정현, 배성숙, 김한나.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및 치과치

참 고 문 헌

- 료 요구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6;10(2):209-218.
47. 신선행.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보건행태 및 지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1;35(4):474-485.
48. 최은미, 송윤신. 포천시 외국인 근로자의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 이용 실태. 한국치위생학회지. 2012;12(1):135-143.
49. 고석주, 홍석진, 윤혜정, 정성숙, 정은주, 최충호.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의 치과진료 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0;34(1):107-116.
50. 심재숙, 이미라, 강윤미.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구강건강 삶의 질.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6;17(2):343-350.
51. 김선주.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치위생학회지. 2012;12(1):17-26.
52. 김현경, 정주, 노화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형 구강건강정보 이해능력. 한국치위생학회지. 2016;16(6):879-891.
53. 서현주, 김수영.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란 무엇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 2018;6(1):16-21.
54. 이혜경. 한국이민정책사.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55. 장분자. 초등학교 고학년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8;8(3):109-115.
56. Hollister Mc, Anema MG. Health behavior models and oral health: a review. J Dent Hygiene. 2004;78(3):6.
57. Horowitz AM, Kleinman DV. Oral health literacy: the new imperative to better oral health, Dent Clin North Am. 2008;52(2):333-344.